# 2. 가구와 가족

2-1. 이상적인 가족구성 형태

2-2.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

2-3.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

2-4. 부모 생활비

2-5. 가족관계 만족도

## 2 - 1. 이상적인 가족구성 형태

# 대다수의 군민이 가족과 함께 사는 것을 선호

**· 군민의 대부분이 가족과 함께하는 형태의 가족구성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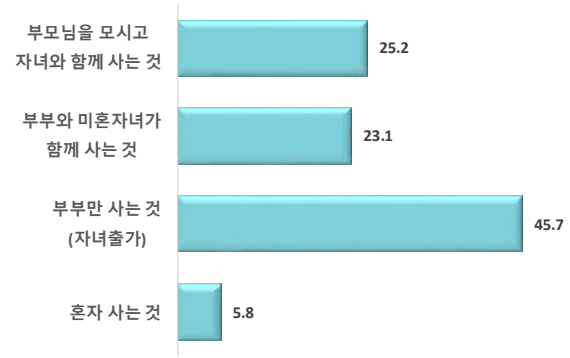
- 전체에서 '가족과 함께 사는 것'에 대한 선호도는 94%로 나타나고, '혼자 사는 것'은 5.8%로 나타남
- '가족과 함께 사는 것'에 포함되는 항목은 '부부만 사는 것(자녀출가)'가 45.7%으로 나타나고 다음으로는 '부모님을 모시고 자녀와 함께 사는 것'이 25.2%, '부부와 미혼자녀가 함께 사는 것'이 23.1% 순으로 나타남

**· '부부만 사는 것'에 대한 선호도는 연령대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**

- '부부만 사는 것'에 대한 연령별 선호도는 '30~39세'가 28.0%이고, '60세 이상'이 55.6%로 연령이 증가할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음
- '부부와 미혼자녀가 함께 사는 것'에 대한 연령별 선호도에서 가장 낮은 '65세 이상'은 9.9%, 가장 높은 '40~49세'는 38.1%로 28.2%p 차이를 보임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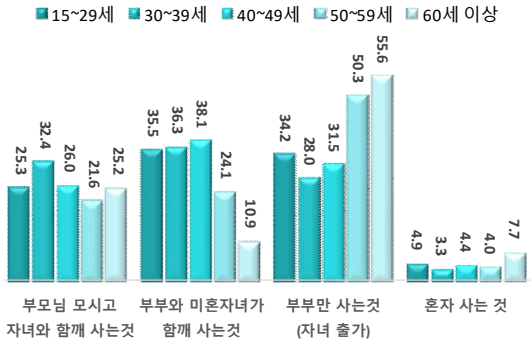
**〈이상적인 가족구성〉**

(단위 : %)




**〈연령별 이상적인 가족구성〉**

(단위 : %)




**이상적인 가족구성 형태** (단위: % )

| 구 분 | 계 | 부모님을 모시고 자녀와 함께 사는 것 | 부부와 미혼자녀가 함께 사는 것 | 부부만 사는 것 (자녀출가) | 혼자 사는 것 | 기타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2018년 | 100.0 | 25.2 | 23.1 | 45.7 | 5.8 | 0.2 |
| <성 별> | | | | | | |
| 남 자 | 100.0 | 27.7 | 21.5 | 46.3 | 4.3 | 0.3 |
| 여 자 | 100.0 | 23.0 | 24.5 | 45.2 | 7.0 | 0.2 |
| <연령별> | | | | | | |
| 15~29세 | 100.0 | 25.3 | 35.5 | 34.2 | 4.9 | 0.0 |
| 30~39세 | 100.0 | 32.4 | 36.3 | 28.0 | 3.3 | 0.0 |
| 40~49세 | 100.0 | 26.0 | 38.1 | 31.5 | 4.4 | 0.0 |
| 50~59세 | 100.0 | 21.6 | 24.1 | 50.3 | 4.0 | 0.0 |
| 60세 이상 | 100.0 | 25.2 | 10.9 | 55.6 | 7.7 | 0.6 |
| 65세 이상 | 100.0 | 25.7 | 9.9 | 55.4 | 8.4 | 0.6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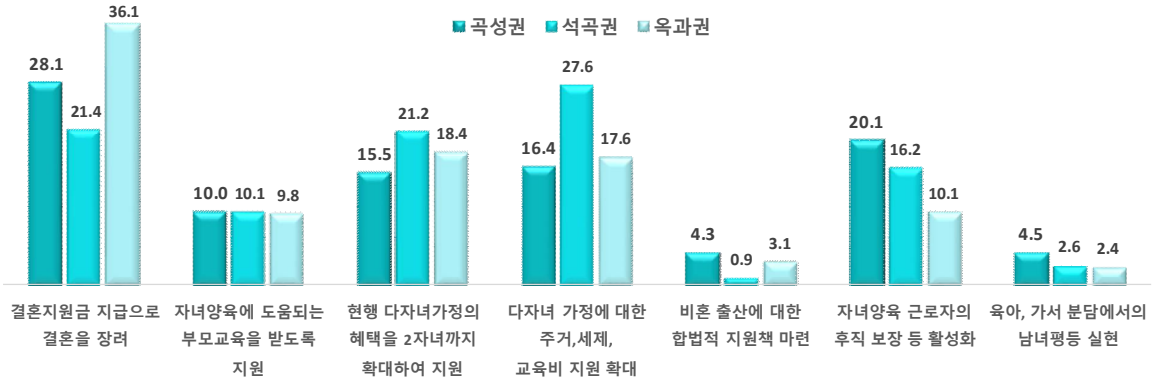
## 2 - 2.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

# 곡성군민 3명 중 1명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주된 방안으로 결혼 지원금 지급을 희망

- **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주된 방안으로 '결혼 지원금 지급으로 결혼을 장려'가 가장 높게 나타남**
  - 주된 응답 중 '결혼 지원금 지급으로 결혼을 장려'가 29.6%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 '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거, 세제, 교육비 지원 확대'가 19.1%, '현행 다자녀 가정의 혜택을 2자녀까지 확대하여 지원'이 17.7% 순으로 나타남
  - '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거, 세제, 교육비 지원 확대'에서 '곡성권(16.4%), '석곡권'(27.6%)과 '옥과권'(17.6%)으로 지역별 차이를 보임
- **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2순위 해결방안으로 '자녀양육 근로자의 휴직을 보장하고 근로시간 단축 등 활성화'가 가장 높게 나타남**
  - 2순위 응답 중 '석곡권'은 '결혼지원금 지급으로 결혼을 장려'가 30.2%로 높게 나타났고, '옥과권'은 '자녀양육 근로자의 휴직을 보장하고 근로시간 단축 등 활성화'가 47.4%로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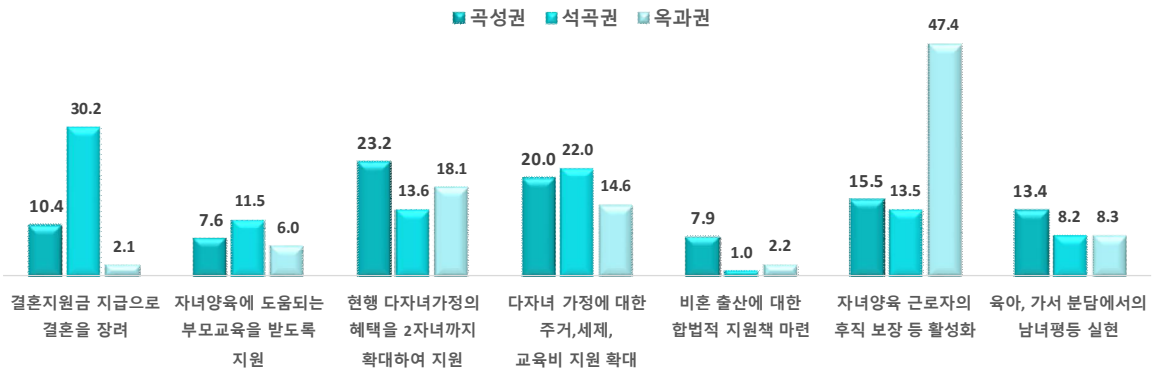
**<지역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(1순위)>**

(단위 : %)




**<지역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(2순위)>**

(단위 : %)



##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(주된 응답) (단위: % )

| 구 분 | 계 | 결혼 지원금 지급으로 결혼을 장려 | 자녀 양육에 도움 되는 부모 교육을 받도록 지원 | 현행 다자녀 가정의 혜택을 2자녀까지 확대하여 지원 |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거,세제, 교육비 지원 확대 | 비혼 출산에 대한 합법적 지원책 마련 | 자녀양육 근로자의 휴직을 보장하고 근로시간 단축 등 활성화 | 육아,가사 분담 에서의 남녀평등 실현 | 신생아의 해외입양을 줄이고, 국내 입양 지원 강화 | 기타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2018년 | 100.0 | 29.6 | 10.0 | 17.7 | 19.1 | 3.2 | 15.7 | 3.4 | 0.5 | 0.8 |
| <지역별> | | | | | | | | | | |
| 곡성권 | 100.0 | 28.1 | 10.0 | 15.5 | 16.4 | 4.3 | 20.1 | 4.5 | 0.7 | 0.4 |
| 석곡권 | 100.0 | 21.4 | 10.1 | 21.2 | 27.6 | 0.9 | 16.2 | 2.6 | 0.0 | 0.0 |
| 옥과권 | 100.0 | 36.1 | 9.8 | 18.4 | 17.6 | 3.1 | 10.1 | 2.4 | 0.7 | 1.8 |
| <연령별> | | | | | | | | | | |
| 15~29세 | 100.0 | 36.5 | 14.8 | 14.3 | 12.9 | 3.3 | 15.2 | 3.0 | 0.0 | 0.0 |
| 30~39세 | 100.0 | 17.8 | 14.8 | 37.1 | 5.0 | 2.7 | 10.1 | 6.1 | 0.0 | 6.4 |
| 40~49세 | 100.0 | 24.6 | 5.2 | 20.2 | 22.4 | 6.0 | 17.4 | 2.6 | 0.0 | 1.7 |
| 50~59세 | 100.0 | 28.3 | 9.9 | 18.6 | 18.1 | 2.4 | 20.5 | 0.9 | 1.1 | 0.3 |
| 60세 이상 | 100.0 | 31.4 | 8.8 | 14.2 | 23.4 | 2.7 | 14.2 | 4.4 | 0.7 | 0.1 |
| 65세 이상 | 100.0 | 32.4 | 9.0 | 13.6 | 24.9 | 2.6 | 12.8 | 4.3 | 0.4 | 0.1 |

##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(복수 응답) (단위: % )

| 구 분 | 계 | 결혼 지원금 지급으로 결혼을 장려 | 자녀 양육에 도움 되는 부모 교육을 받도록 지원 | 현행 다자녀 가정의 혜택을 2자녀까지 확대하여 지원 | 다자녀 가정에 대한 주거,세제, 교육비 지원 확대 | 비혼 출산에 대한 합법적 지원책 마련 | 자녀양육 근로자의 휴직을 보장하고 근로시간 단축 등 활성화 | 육아,가사 분담 에서의 남녀평등 실현 | 신생아의 해외입양을 줄이고, 국내 입양 지원 강화 | 기타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2018년 | 100.0 | 12.4 | 8.0 | 19.1 | 18.6 | 4.3 | 25.9 | 10.4 | 1.0 | 0.3 |
| <지역별> | | | | | | | | | | |
| 곡성권 | 100.0 | 10.4 | 7.6 | 23.2 | 20.0 | 7.9 | 15.5 | 13.4 | 1.7 | 0.3 |
| 석곡권 | 100.0 | 30.2 | 11.5 | 13.6 | 22.0 | 1.0 | 13.5 | 8.2 | 0.0 | 0.0 |
| 옥과권 | 100.0 | 2.1 | 6.0 | 18.1 | 14.6 | 2.2 | 47.4 | 8.3 | 0.8 | 0.5 |
| <연령별> | | | | | | | | | | |
| 15~29세 | 100.0 | 12.2 | 13.4 | 17.6 | 22.1 | 4.8 | 21.1 | 8.9 | 0.0 | 0.0 |
| 30~39세 | 100.0 | 17.3 | 5.1 | 19.6 | 12.5 | 3.6 | 27.8 | 10.5 | 1.8 | 1.8 |
| 40~49세 | 100.0 | 9.5 | 4.8 | 15.8 | 18.1 | 2.2 | 32.9 | 15.9 | 0.8 | 0.0 |
| 50~59세 | 100.0 | 9.4 | 5.8 | 19.0 | 19.5 | 4.8 | 26.6 | 12.1 | 2.2 | 0.6 |
| 60세 이상 | 100.0 | 14.0 | 8.8 | 20.8 | 18.1 | 4.6 | 24.6 | 8.2 | 0.7 | 0.1 |
| 65세 이상 | 100.0 | 14.3 | 9.1 | 20.7 | 18.0 | 5.4 | 23.7 | 8.0 | 0.8 | 0.0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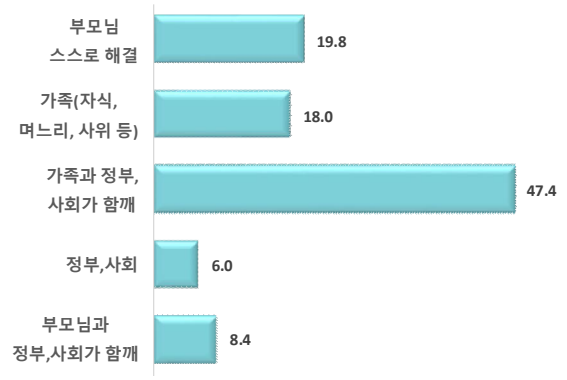
## 2 - 3.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

# 곡성군 군민 2명 중 1명은 부모 부양에 대해 가족과 정부·사회의 협동을 요구

- **부모 부양은 '가족과 정부·사회'가 함께 협동해야한다는 의견이 높은 비율로 나타남**
  - '가족과 정부·사회가 함께'(47.4%)가 가장 높게 나타나고, '부모님 스스로 해결'(19.8%), '가족'(18.0%) 순으로 나타남
- **석곡권의 경우 '가족과 정부·사회가 함께'가 비교적 낮은 비율로 나타남**
  - '석곡권'의 경우 '가족과 정부·사회가 함께'가 35.5%로 다른 지역에 비해 낮게 나타남
  - '부모님 스스로 해결'의 경우 '곡성권'(21.4%), '석곡권'(27.9%)과 '옥과권'(13.2%)으로 지역별 차이가 나타남
- **40대, 50대에서는 '가족과 정부, 사회가 함께'가 비교적 높은 비율로 나타남**
  - '40대', '50대'의 경우 '가족과 정부, 사회가 함께'가 56.8%, 55.1%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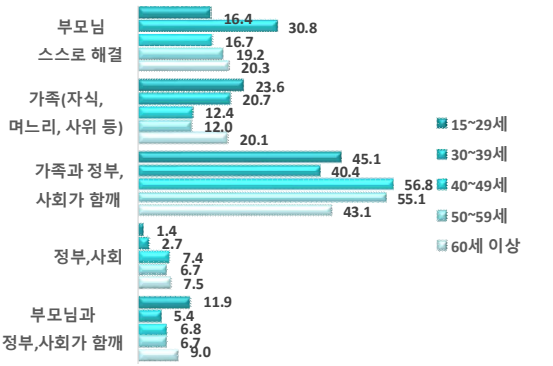
**<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>**

(단위 : %)




**<연령별 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>**

(단위 : %)




**부모 부양에 대한 견해** (단위: % )

| 구 분 | 계 | 부모님 스스로 해결 | 가족 | 가족과 정부,사회가 함께 | 정부,사회 | 부모님과 정부,사회가 함께 | 기타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2018년 | 100.0 | 19.8 | 18.0 | 47.4 | 6.0 | 8.4 | 0.3 |
| <지역별> | | | | | | | |
| 곡성권 | 100.0 | 21.4 | 14.0 | 52.4 | 2.1 | 9.5 | 0.6 |
| 석곡권 | 100.0 | 27.9 | 21.9 | 35.5 | 4.3 | 10.1 | 0.4 |
| 옥과권 | 100.0 | 13.2 | 20.7 | 48.1 | 11.8 | 6.1 | 0.0 |
| <연령별> | | | | | | | |
| 15~29세 | 100.0 | 16.4 | 23.6 | 45.1 | 1.4 | 11.9 | 1.5 |
| 30~39세 | 100.0 | 30.8 | 20.7 | 40.4 | 2.7 | 5.4 | 0.0 |
| 40~49세 | 100.0 | 16.7 | 12.4 | 56.8 | 7.4 | 6.8 | 0.0 |
| 50~59세 | 100.0 | 19.2 | 12.0 | 55.1 | 6.7 | 6.7 | 0.3 |
| 60세 이상 | 100.0 | 20.3 | 20.1 | 43.1 | 7.5 | 9.0 | 0.1 |
| 65세 이상 | 100.0 | 20.5 | 21.1 | 41.9 | 7.3 | 9.1 | 0.0 |

## 2 - 4. 부모 생활비

# 곡성군민의 과반수 실제 생활비를 「부모님 스스로 해결」

**· 부모님의 실제 생활비의 경우 '부모님 스스로 해결'이 높은 비율로 나타남**

- 부모님의 실제 생활비는 '부모님 스스로 해결'이 59.5%로 가장 높게 나타나고, '모든 자녀'가 25.1%, '아들 또는 며느리'가 9.7% 순으로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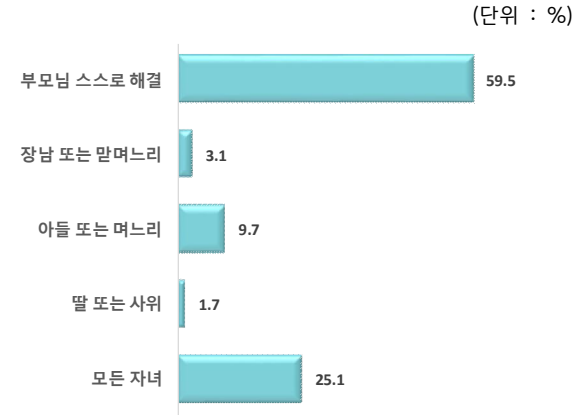
**· 옥과권의 경우 '모든 자녀'가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남**

- '옥과권'의 경우 '모든 자녀'가 30.8%로 다른 지역에 비해 높게 나타남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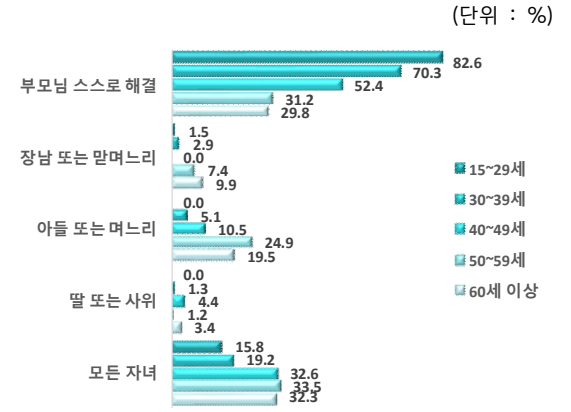
**· '부모님 스스로 해결'은 연령대별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남**

- '부모님 스스로 해결'에 대한 연령별 선호도는 '15~29세'(82.6%), 30대(70.3%), 40대(52.4%), 50대(31.2%)로 감소함

**<부모 생활비 지원>**




**<연령별 부모 생활비 지원>**




**부모 생활비** (단위: % )

| 구 분 | 계 | 부모님 생존 | 소계 | 부모님 스스로 해결 | 장남 또는 맏며느리 | 아들 또는 며느리 | 딸 또는 사위 | 모든 자녀 | 기타 | 안 계심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2018년 | 100.0 | 47.4 | 100.0 | 59.5 | 3.1 | 9.7 | 1.7 | 25.1 | 0.9 | 52.6 |
| <지역별> | | | | | | | | | | |
| 곡성권 | 100.0 | 47.7 | 100.0 | 64.0 | 3.4 | 7.8 | 1.6 | 22.3 | 1.0 | 52.3 |
| 석곡권 | 100.0 | 39.1 | 100.0 | 51.7 | 4.0 | 9.2 | 3.1 | 30.8 | 1.2 | 60.9 |
| 옥과권 | 100.0 | 51.6 | 100.0 | 57.6 | 2.5 | 12.1 | 1.2 | 25.8 | 0.8 | 48.4 |
| <연령별> | | | | | | | | | | |
| 15~29세 | 100.0 | 100.0 | 100.0 | 82.6 | 1.5 | 0.0 | 0.0 | 15.8 | 0.0 | 0.0 |
| 30~39세 | 100.0 | 93.7 | 100.0 | 70.3 | 2.9 | 5.1 | 1.3 | 19.2 | 1.3 | 6.3 |
| 40~49세 | 100.0 | 82.6 | 100.0 | 52.4 | 0.0 | 10.5 | 4.4 | 32.6 | 0.0 | 17.4 |
| 50~59세 | 100.0 | 49.3 | 100.0 | 31.2 | 7.4 | 24.9 | 1.2 | 33.5 | 1.9 | 50.7 |
| 60세 이상 | 100.0 | 7.3 | 100.0 | 29.8 | 9.9 | 19.5 | 3.4 | 32.3 | 5.1 | 92.7 |
| 65세 이상 | 100.0 | 4.0 | 100.0 | 29.6 | 2.6 | 20.7 | 4.7 | 35.0 | 7.4 | 96.0 |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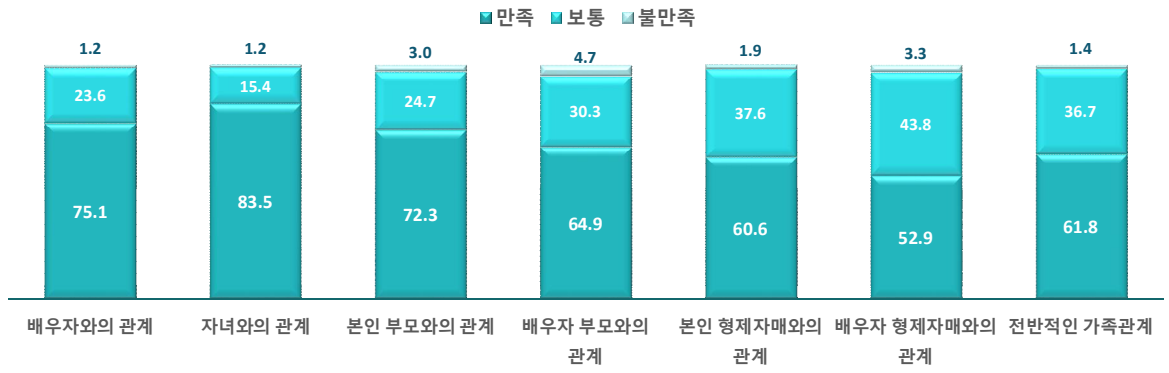
## 2 - 5. 가족관계 만족도

# 곡성군민 5명 중 4명은 「자녀와의 관계」에 대해 만족

- **'자녀와의 관계'에 대한 만족도가 높게 나타남**
  - '자녀와의 관계'의 '만족'(매우만족+약간만족)은 83.5%로 높게 나타나고, '불만족'(매우 불만족+약간 불만족)은 1.2%에 그침
- **가족관계 만족도는 '자녀와의 관계', '배우자와의 관계', '본인 부모와의 관계' 순으로 높게 나타남**
  - 가족관계 만족도는 '자녀와의 관계'(83.5%), '배우자와의 관계'(75.1%), '본인 부모와의 관계'(72.3%), '배우자 부모와의 관계'(64.9%) 순으로 높게 나타남
- **'배우자 형제자매와의 관계'는 52.9%로 다른 가족관계 만족도보다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남**

〈가족관계 만족도〉

(단위 : %)




가족관계 만족도 (단위: % )

| 구 분 | 계 | 매우 만족 | 약간 만족 | 보통 | 약간 불만족 | 매우 불만족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배우자와의 관계 | 100.0 | 40.8 | 34.3 | 23.6 | 0.6 | 0.6 |
| 자녀와의 관계 | 100.0 | 44.5 | 39.0 | 15.4 | 0.9 | 0.3 |
| 자기 부모와의 관계 | 100.0 | 45.1 | 27.2 | 24.7 | 2.1 | 0.9 |
| 배우자 부모와의 관계 | 100.0 | 32.8 | 32.1 | 30.3 | 4.5 | 0.2 |
| 자기 형제·자매와의 관계 | 100.0 | 30.8 | 29.8 | 37.6 | 1.6 | 0.3 |
| 배우자 형제·자매와의 관계 | 100.0 | 23.5 | 29.4 | 43.8 | 3.0 | 0.3 |
| 전반적인 가족관계 | 100.0 | 31.1 | 30.7 | 36.7 | 1.0 | 0.4 |